



KOGA 땅그랑지역 단합을 위한 간담회 및 골프대회 열려
KOGA 땅그랑지역 회원사의 단합을 위한 골프대회 및 간담회가 모던랜드 CC에서 열렸다. KOGA의 단합과 현 인도네시아 봉제기업의 현황에 대해 폭넓은 대화로 의미있는 시간들을 가졌다.

한국봉제

한국 봉제산업을 선도하는

Vol. 7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KOGA KOREA GARMENT ASSOCIATION IN INDONESIA



KOGA 땅그랑지역 회원단합과 상생을위한 정기모임 가져



▲ 이규백 KOGA 상임사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KOGA 땅그랑지역(회장 : 이 제엽) 회원사는 지난26일 땅 그랑 소재 모던랜드 CC에서 KOGA 발전과 각 회원사의 단 합된 의지로 상생의 모임을 가 졌다.

이날 행사에는 안장섭 수석 부 회장, 이규백 상임사 부회장, 김 동석 KOGA 사무총장을 비롯 해 KOGA 사무국 요원과 땅그 랑 KOGA 회원이 한데 어우러 져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KOGA 땅그랑 지역모임은 매 월 마지막주 일요일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는데 이날은 땅그 랑 모임의 단합된 모습과 화합 된 모습을 KOGA 사무국에서 함께 나누는 훈훈하고 의미있 는 분위기의 행사를 가지게 되 었다.

특히 땅그랑 지회는 타 지역 과 달리 끈끈한 결속력과 우애 로 타 모임이 부러워 할 정도의 모임을 가지고 이러한 모임을 통해 상호 정보교류를 해 나가 고 있는 모범된 모임으로 정평 이 나 있어 주위의 부러움을 사 기도 했다.

이규백 상임 부회장은 이날 모임에서 회원사에게 다가가

▲ KOGA 땅그랑 지역 협회(회장 : 이제엽) 회원들의 단체사진

는 KOGA가 되어 땅그랑 뿐만 아니라 타 지역회원사간 상호 교류와 공감대 형성에 적극 애 써겠다고 말했으며 이제엽 땅 그랑 KOGA 회장은 오늘 땅

그랑 지역 모임에 방문해주신 KOGA 사무국요원에게 감사 의 뜻을 표했으며 KOGA 발 전에 땅그랑 지역 KOGA가 적 극 협조하고 선도하는 모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동석 사무총장은 지난 해 7월 출범한 새 집행부의 강 령한 의지로 지역별 모임에 상 임사 부회장과 사무국에서 함 께 참여해 KOGA의 단합에 작 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 으며 땅그랑 지역의 단합된 모 습이 아름답다고 치하했다. KOGA는 지역별 순회 방문을

통해 과거의 KOGA에서 새로 운 모습의 KOGA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으며 그간 느껴보지 못했던 감동과 우리는 하나라는 감성을 나누고 표현하는 계기가 되 고있어 KOGA의 비전은 더욱 더 푸른 빛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력 감독 전담반 발족



▲ 인도네시아 인력 당국이 불법 또는 단순노동 외국인력 신고를 권고하는 공지문. [사진출처: 엘신따]

인도네시아 정부가 17일 외국 인력 감독전담반을 발족하고 외국인력과 고용주의 위반사례 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8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전담반 구성은 국회 제9 상임위원회의 권고와 최근 정 부의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무하맛 하늬 다끼리 인력이주 장관은 17일 자카르타 외국인 력 감독전담반 출범식에서 “ 정부가 외국인력 고용 허가 절 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감독을 강화하게 됐다” 라고 설명했 다.

하늬 장관은 이번 전담반의 설 립 근거는 인력부 장관령 No. 73/2018라며, 외국인력 위반사 례를 신고할 수 있는 콜센터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담반은 허가문제, 고용상태, 노동허가와 실제 업무와의 차 이 등 여부 등 위반사항을 조사 하게 된다.

현재 이민국 소속의 외국인력 감시팀(Timpora)이 있지만 대 약 85,974명이나 되는 인도네 시아 취업 외국인력을 감시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회 제9 상임위원회 데데 유 슽 위원장은 과거에는 뽀뽀라 로 충분했지만, 2016년 이후 많 은 위반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좀더 효과적인 수단이 필요하 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담반에는 외국인력 관련 정 부 부처 24개에서 파견된 인력 45명이 참여하며, 앞으로 6개

월 간 활동한 뒤 실적을 평가받 게 된다.

인력부의 수경 브리안토 대변 인은 “예를 들면 광산업에 취 업한 외국인력에 대한 조사는 에너지광물부의 자료와 전문 성을 활용해야 한다” 라고 설 명했다.

전담반은 제조업, 광업, 서비스 업, 물류산업, 농업, 무역, 수산 업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

인도네시아에 외국인력이 증 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취 업한 외국인노동자 수는 2013 년에 70,120명에서 2017년에 85,974명으로 증가했다.

인력이주부 자료에 따르면, 외 국인노동자 위반사례는 2016 년에 848건에서 2017년에 775 건으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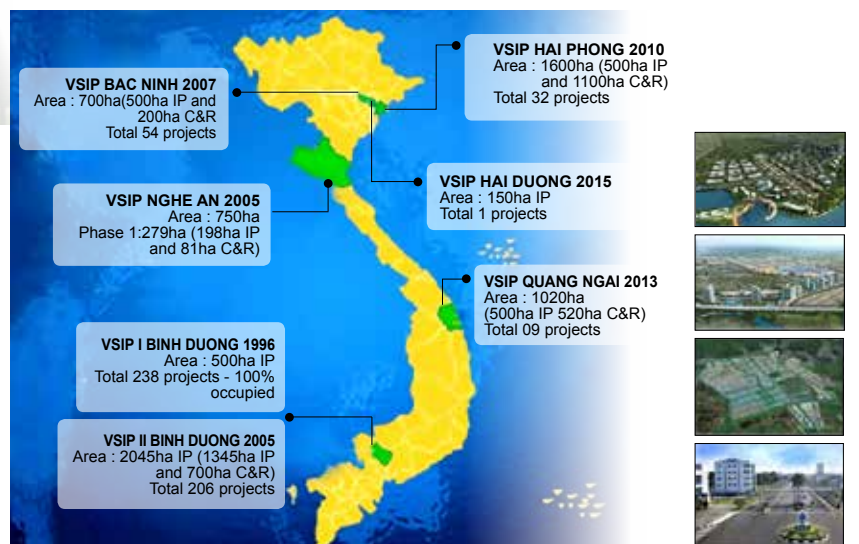
위반사례가 많은 곳은 광업, 무 역업, 해양수산업, 서비스업 등 이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탁월한 선택, 후회없는 결정 Kendal / Park By The Bay



구분	토지면적	인구	1년 졸업생	GDP성장률	주요인프라
스마랑지역	39,800Km ²	3백3십만명	150,000명	6%	탄중항구, 스마랑 국제공항

Vietnam-Singapore Industrial Park (베트남-싱가포르 산업단지)



구분	VSIP박닌	VSIP하이퐁	VSIP응에안	VSIP광나이	VSIP빈중
토지가격	US \$70	US \$95	US \$38	US \$38	US \$70
공단특색	삼성, LG 1시간거리내	항구도시 (북부최대항)	인력풍부 (3백3십만명)	두산중공업	외국계최다 투자지역
추천업종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건설자재, 자동차부품	섬유, 신발 (노동집약)	섬유, 신발 중공업	전자/전자 식음료, 제약
최저임금	3급지	1급지	4급지	3급지	1급지
개발규모	150ha	1,600ha	750ha	1,120ha	2,500ha

산업단지 문의 : 박병현 팀장 (문의메일 : Park.byunghyun@sembcorp.com)
한국 : (82)010-9081-0424 / 베트남 : (84)012-7828-7293

‘벼랑끝’ 신흥국 뒤늦게 금리인상 나섰지만 ... 효과는 낙관 못해



통화가치 급락·자본유출 아르헨·인니·터키, 잇따라 금리 인상

블룸버그 “미국 금리 상승의 여파에 취약한 국가는 터키, 아르헨티나, 페루, 브라질,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에 이어 터키도 금리를 전격 인상하면서 통화가치 급락으로 위기에 몰렸던 신흥국들이 잇따라 대응에 나서는 양상이다.

터키 중앙은행은 23일(현지시간) 긴급 통화정책위원회를 소집해 주요 금리 중 하나인 후반유동성창구(LLW) 금리를 13.5%에서 16.5%로 3%포인트 인상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17일 정책금리인 7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를 4.25%에서 4.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인도네시아는 그간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해 왔으나 4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린 것이다.

그보다 앞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했다. 기준금리는 이 기간 27.25%에서 40%로 급격히 올랐다.

금리 인상에 나선 국가들은 최

10% 이상 급락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연초 대비 4%가량 떨어졌고 달러당 14,000루피아를 돌파했다.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한 미국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신흥국에서는 자본유출이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자본 의존도가 높고 무역수지 등 경제 여건이 취약한 국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터키의 금리 인상에 일단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23일 달러당 4.91리라에 달했던 환율은 금리 인상 후 4.58리라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경제 기초체력이 취약한 데다 정치적 요인이 변수로 남아있어 정책금리 인상이 기대만큼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샤페리아 칸 얼라이언스번스

단기적인 심리 변화 이상을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는 금리 인상 이후에도 페소화 가치가 급락을 거듭해 지난 14일 달러당 환율이 24.98페소까지 치솟았고 인도네시아 루피아도 23일 달러당 14,209루피아가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흥국 통화 약세와 자본유출의 가장 큰 요인인 미국의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가 바뀌지 않는 터라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정책 대응과 글로벌 경기 회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타타 고스 코메르츠뱅크 분석

통화가치 급락·자본유출 아르헨·인니·터키, 잇따라 금리 인상 블룸버그 “미국 금리 상승의 여파에 취약한 국가는 터키, 아르헨티나, 페루, 브라질, 인도네시아”

금 통화가치 급락으로 자본유출 위기를 겪은 국가들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터키 리라화는 올해 들어 이번 금리 인상 직전까지 달러화 대비 28%가량 절하됐으며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도 올해 들어 4개월간

블룸버그는 지난 22일 세계은행의 정부 효율성 지수 대비 경 상수지 비율을 비교했을 때 신흥국 중에서도 미국 금리 상승의 여파에 가장 취약한 국가는 터키, 아르헨티나, 페루, 브라질, 인도네시아라고 분석했다.

틴 신흥시장 채권 국장은 블룸버그통신에 “금리 인상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시장 심리를 바꾸는 데는 충분치 못할 것”이라며 “중앙은행이 계속 때파적 정책을 쓰면 긍정적 영향이 유지되지만 단 한 번으로는

가는 “글로벌 시장이 받쳐주 다면 단기적으로 (한 차례의 금리 인상이) 충분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투자조정청, 온라인 인허가 제도(OSS) 시행 또다시 연기... 이달 말 완료 목표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통합 인허가 제도인 ‘온라인 싱글 섹미션(OSS·Online Single Submission)’의 도입시기가 다시 연기됐다. 현지 언론 드퓌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투자조정청(BKPM)은 당초 20일부터 OSS 운영을 시작한다고 했지만, 시스템이 아직 준비 중이라 실시하기 어

렵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4월 예정에서 재차 연기됐다. 토마스 램봉 투자조정청장은 운용 개시 지연에 대해 “시스템 준비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중앙·지방정부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 편성이 늦었다”라고 말하며 “전국 514개 군·시 중 태스크 포스가 구성된 지역은 전체의 82%였다. 서부 자바 짜야미스와 인드라마유 등 92개 군·시가 늦게 편성됐다”라고 설명했다. 토마스 램봉 청장은 이어 “시스템은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도입된다”라고 덧붙였다.

였다. 한편, 경제조정부는 이달 말에 도입돼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라마단 기간중 영사와 민원실 운영시간 변경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과는 라마단 기간 중 인도네시아 국적 행정직원들의 단축 근무로 인하여 영사과 민원실 운영시간을 일시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한다.

운영시간 변경 참고하여 민원업무 접수 및 수령에 차질 없도록 공지했다. 적용시기가

지난 이후에는 종전과 동일한 09시~12시, 13시~16시30분으로 운영된다.

라마단 기간 중 영사과 운영시간 변경

- 적용시기 : 5.15(화)~6.14(목)
- 영사과 민원실 운영시간 : 09시~12시, 13시~16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한민국 대표 재봉기, 자수기!

썬스타 인도네시아 직영법인

- ▶ FAST, ACCURATE SERVICE UP
- ▶ 재봉기 / 자수기 부품
- ▶ 보드수리 완벽구비!!!

인도네시아 법인 외부전경

인도네시아 법인 내부전경

인도네시아 법인 쇼룸

스마랑 사무소

SunStar SWF 인도네시아 총괄 강현욱 이사

재봉기 오경환 팀장 001-62-821-4303-8822 okh@sunstar.co.kr

자수기 강현욱 이사 001-62-858-8896-7825 kevin kang1103@gmail.com

합성섬유협회, 올해 레이온 공급 과잉 전망



지난 14일자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합성섬유협회(Apsyfi)는 연내에 국내 최대 레이온 공장이 가동을 예정하고 있어 국내 레이온 섬유의 공급 과잉에 따른 수출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Apsyfi의 레도마 사무 총장은 “싱가포르계 레이온 섬유 제조사인 아시아 퍼시픽 레이온(Asia Pacific Rayon, 이하 APR)이 연간 생산 능력 35만톤의 레이온 공장을 연말에 가동시킬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에는 또 다른 기

업이 15만톤의 연간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다”며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 방직 업계도 생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레이온 공장의 총 연간 생산 능력은 101만톤으로 가동률은 55% 정도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부터 불법 섬유 수입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왔으며, 올해 1분기(1~3월) 섬유 상류 산업의 총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를 기록했다.

BI, 루피아/달러 환율 새 균형점 향해... 추가 금리인상 예상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루피아/달러 환율이 새 균형점(new normal)에 들어섰다고, 세계적인 미국 달러 강세 기조를 역행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퇴임을 하루 앞둔 22일 아구스 마르토파르도요 BI 총재는 인도네시아가 경상적자와 재정적자가 동시에 있는 쌍둥이적자 상태여서 외부위험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발도상국들이 쌍둥이적자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제정책을 재편성하는 이코노믹 리밸런싱(economic rebalancing)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구스 총재는 임기 중 열린 마지막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무역수지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등을 개선할 수 없다면 어떤 기적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스페인 국적의 경제연구소 포커스-이코노미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등 아세안 5개국이 쌍둥이적자로 어려움을



▲ 아구스 마르토파르도요 BI 총재가 2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BI 공식 웹사이트, 2018.5.22]

겪고 있다. 아구스 총재는 쌍둥이적자와 세계경제의 리밸런싱이 계속되면 자본유출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인도네시아를 다시 수출국으로 만들자. 공산품을 늘리고 과도한 자원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올 1분기 인도네시아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2.1%인 55억 달러였다. 경상수지는 국가 무역을 가능하는 척도로, 현재 인도네시아는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적자 상태이다. BI는 2018년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GDP의 2.3%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경상수지 적자 예상치는 GDP의 2.0%였지만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는 상태

가 계속되면서, 현재 예상치를 초과했다. 아구스 총재는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3% 미만이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올 4월 인도네시아 무역수지는 16억3천만 달러 적자로, 수입이 급증하면서 전월의 무역수지 흑자를 뒤집었다. 미 달러화 강세, 미국 금리 인상, 인도네시아 쌍둥이적자 등으로 루피아가 약세가 되자, BI가 지난 수주일 동안 외환과 채권 시장에 개입했지만 루피아에 대한 시장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했다. 이어 BI는 지난 17일에 기준금리인 7일물 예대포금리를 0.25%p 인상했지만 역시 루피아 약세를 막지 못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BI가 기준금리를 0.25%p가 아닌 0.50%p를 인상했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22일 14시40분경에 루피아/달러 환율은 14,203까지 상승했다가 내림새로 돌아서서 14,142에 마감했다. 루피아/달러 환율이 14,200을 넘어선 것은 2015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자카르타 은행간 현물 달러 환율(Jakarta Interbank Spot Dollar Rate)은 21일 14,176에서 22일 14,178로 상승했다.

민영은행 BCA의 데이빗 수무알 이코노미스트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만 국내외시장 상황을 보면서 인상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소 소속 에릭 수간디 경제비평가는 차기 총재단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해 시장을 시험해봐야 한다고 하며, BI가 최대 75%p를 인상할 여력이 있다고 보았다. 아구스 총재는 오늘(23) 임기가 끝나며, 후임으로 페리 와르지요 현 BI 수석부총재가 임명됐다.

자수실 실시간 염색기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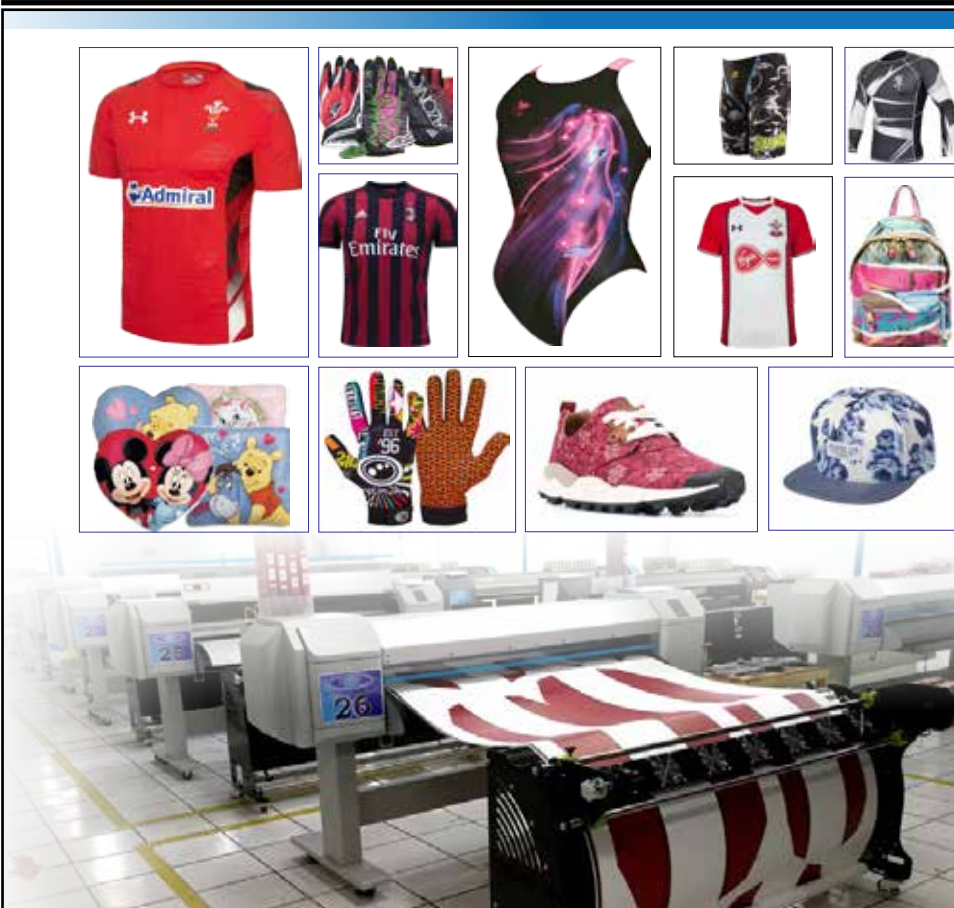
스웨덴 자수직물 적용 바느질 동시 색상 입혀
스웨덴에서 새로운 자수 원사 염색 방법이 개발돼 이를 상용화시키기 위한 파트너십이 최근 형성됐다. 스웨덴 컬러리얼(Cobreal)은 임브로이더리 기계를 이용해 직물에 자수를 새기면서 즉각적으로 자수실을 원하는 색상으로 염색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냈다. 자수실 염색 기기는 자수를 새겨 넣는 대부분의 주요 기기들에 부

착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염색 기기의 제조를 스웨덴 기업 스캔필(Scanfil)이 맡아 하게 됐다. ‘임브로라인(Embroline)’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염색 기기는 스캔필의 오토비다베리 시설에서 올 가을부터 생산되기 시작한다. 임브로라인 염색 기기는 하얀 실을 베이스로 사용한다.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하얀색인 실을 사용해 기계로 자수를 놓으면서 동시에 원하는 색상으로 자수실을 염색할 수 있는 형식의 기술이다.



컬러리얼은 임브로라인을 사용할 경우 자수실의 색상을 바꾸기 위해 한 개의 실 사용을 멈추고 다른 색상 실로 변경하는 데 걸리는 작업과 시간을 절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아주 복잡한 자수 디자인의 경우 최대 80%까지 생산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컬러리얼은 2009년 설립된 기

업으로 텍스타일 원사 염색 기술을 개발해 왔다. 산업용 임브로이더리, 봉제, 니팅, 워빙 등에 활용될 목적으로 개발돼 오고 있다. 이중 첫 번째로 출시하게 되는 기술 제품이 산업용 자수 기기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임브로라인’이다. 기기의 생산을 맡은 스캔필 측은 “스캔필이 기술적으로 진보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컬러리얼과의 파트너십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전했다. 국제섬유신문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털 승화전사 날염” 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 paran.kwo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
박용상 : 0815 1902 4176

인니 1분기 의류 수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



인도네시아 섬유업체협회(API)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의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1% 신장했다. 한국과 일본의 수요 증가가 수출 확대에 기여했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API의 에이드 회장은 “섬유산업은 직원 시위가 일어나면 생산이 정지된다. 납입 기한을 지키기 위해 높은 비용을 지출해서라도 항공 운송을 이용하게 된다. 비용 측면에 직접적인 타격이 생긴다” 라고 설명했다.

에이드 회장은 이어 “이에 시위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정치 중심지에서 떨어진 중부 자바 주 등으로 공장을 이전해 효율화가 증가했다” 라고

설명했다.

중부 자바주 최저임금은 수도권에 비해 저렴해 지난 3년 동안 많은 기업들이 공장을 중부 자바 지방으로 이전한 것 등이 수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에이드 회장은 “수출 국가 중 중국 다음으로 유럽이 가장 큰 시장이다”라며 “한편 유럽은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제품에는 수입관세를 면제한 반면, 인도네시아 제품에는 11~19%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유럽 수출 확대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라고 견해를 나타냈다.

작년 전체 섬유 제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125억 3,000만 달러였다

교통부, 무역항 8개소 추가... 물류 비용 개선 도모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항구 8곳을 새로운 무역항으로 지정했다.

수출입 화물을 취급하는 항만을 늘려 원활한 물류 수송을 도모하고 운송 비용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지 언론 끈판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무역항으로 지정된 곳은 ◇ 반톤 짜완단 항구 ◇ 찌가딩 항구 ◇ 메락 마스 항구 ◇ 잠비주 무아라 사박 항구 ◇ 방까 블리퐁군 블리뉴 항구 ◇ 판중 빵당 항구 ◇ 파푸아주 소롱 항구 ◇ 리아우제도주 판중 바투 항구이다.

교통부의 구수 리오날 홍보 부장은 “항만 간 거리가 가까워져 운송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수출화물 전용 터미널이 52개 무역항이 89개소 있다.



김재훈의 세무상식

자본금과 세무이슈

외투법인(FMA)의 경우 주식회사(PT)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한데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는 수권자본제도로 총 발행할 주식수를 설립 장판에 기재하게 된다.

수권자본(Modal Dasar)제도로 주식회사에서 있어서 회사 설립 시 설립장판에 회사가 발행할 총 주식수(수권주식총수)를 기재하고 이렇게 기재된 수권주식 총수 중 주주가 일부만 납입하여도 회사가 설립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증자 형태로 자본 조달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수권 자본은 회사 설립시 총발행할 주식을 뜻하며, 납입자본(Modal Setor)는 말그대로 실제 납입한(회사에 입금한) 자본금을 의미한다.

인니 주식회사법상 최초 납입 자본금(Modal Setor)은 수권자본(Modal Dasar)의 25%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25% 이상이면 50% 든 100% 든 관계없다 최소 25% 이상이면 가능하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예약하지 않더라도 법인 설립이 되지만, 회계처리상은 납입을 하지 않더라도 정관에 등록된 납입자본금을 자본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되는 자본금은 반드시 정관상 납입자본금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납입을 하지 않아도 법인이 설립되므로 한국의 투자자가 이해하는 납입자본금과 정관상 납입자본금의 차이로 인하여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다.

사례 1) 한국에 모 기업은 상장 회사로 인니에 투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연결하여 공시하는 기



김재훈 대표

업인데, 인니 회사의 정관상 수권자본금은 20,000,000불이고 납입자본금은 15,000,000불로 설립되었다. 한국 모 기업에서 그 해 10,000,000불만 송금하였다.

한국 모기업의 입장은 한국에서는 투자유증권으로 10,000,000불만 회계처리 하였고 인니 투자회사도 자본금이 10,000,000불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자본금으로 10,000,000불만 송금하였기 때문인데, 인니 법인은 정관상에 20,000,000불이 납입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20,000,000불을 자본금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납입되지 않은 10,000,000불은 주주대여금 등으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감사인은 한정 의견을 줄 수 밖에 없고 세무상으로도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다. 세무상 20,000,000불이 정관상 납입자본금으로 되어 있으므로 실제 납입한 10,000,000불만 자본금으로 처리한다면 10,000,000불에 대해서 세무당국의 입장은 주주가 배당금으로 가져 갔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일 수 있지만 사례 1과 같은 유사 사례는 많은 산설

회사들에 발생되고 있다.

사례2) 정관상 납입자본금이 1,000,000불인 기업이 있는데 당해년도에 납입을 하지 못하고 수년에 걸쳐서 납입을 하였는데 세무당국은 별도 거래로 인정하여 매출로 과세한 사례인데 이의신청에서 받아드려 해결은 되었지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들 어감.

사례3) 납입자본금이 90만불인 기업이 있는데 주주는 ABC로 각각 30만불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납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B, C 주주가 D, E 로 변경되었고 이렇게 주주가 여러 차례 형식적으로 변경되었는데 인니 세법상 비거주자의 비상장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의 5%를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앞에서 언급을 하였듯이 자본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그렇지만 자본금 납입이 되지 않더라도 법인 설립이 되기 때문에 미납입 자본금에 대한 인식 차이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끝)

약력
PT. BNG Consulting 대표
재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사무국 사무처장
중소기업 진흥공단 인니세무 자문
Toray Group (TPJ) 세무자문 위원
인도네시아 조세변호사 (Tax Lawyer)

저서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TEL : 021 522 2739
e-mail : kimjhoon@bngconsulting.co.kr



한인기업과 함께 한 15년 500여 한인기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가절감” 3년 사용후 wheel 교체만으로 10년간 재 사용할수 있는 인도네시아 판매 유일업체입니다. 한국산 중국산 수입판매처로 15년간 약 500여 업체에 공급하며 품질과 신뢰가 이미 검증되어 귀사의 생산현장에 최상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CASTER (Polyurethan, Rubber) / 300종 재고보유



PLASTICS (400종)



TROLLEYS



PT. JM EKA PERSADA

Office & Warehouse : Jln. Teuku Umar Ruko Hollandia No. 66 Lippo Village Utara, Kel. Panunggan Barat, Kec. Cibodas – Tangerang
Tel : (62) 21 558 – 6446 / (62) 21 5577 – 7201 Fax : (62) 21 558 – 5373
Hp : 081111 3645 (Mr. Oh) Email : jm.eka@yahoo.com

BOSUNG INDONESIA ...

창조경영, 인재경영, 상생경영으로 인도네시아를 누빈다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넓게 탁 트인 공장전경은 방문자의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그것도 잠시 공장으로 들어서자마자 숨가쁘게 분주한 생산현장이 한 눈에 들어오고 구슬땀이 맺힌 각 공정의 근로자들의 손과 눈빛은 가치 있어 보이는 현장의 분위기를 넘어 힘이 넘치는 생동감있는 현장을 골장 느낄 수 있었다. BOSUNG INDONESIA(대표:양태화)는 인도네시아에서 조금 있었다는 한국동포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익히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한인기업으로 그 역사의 시작은 27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다. 27년전 1991년 창업한 BOSUNG INDONESIA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많은 한인 기업중 그 역사가 30년을 바라보는 기업으로 현재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회장으로 계시는 양영연회장이 창업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한인기업이다.



BOSUNG INDONESIA 연혁

2018 연 매출 4,500만불 달성 진행중

2017 연 매출 4,000만불 달성
핸드폰 박스 생산시작(LG, SAMSUNG)
알람수트러 영업 사무소 Packaging Solution개소

2015 2대 양태화 사장 취임
연 매출 3,000만불 달성
인도네시아 최대 소매유통기업 MAP 전략적 제휴

2008 자회사 PT.TAEWON INDONESIA 설립(찌까랑)
업소 납품계약

2004 연 매출 2,000만불 달성

2000 연 매출 1,000만불 달성
쇼핑백 사업시작
일본 더팩, 유럽 월그팩 납품계약

1997 LG독점공급 계약
퓨마(PUMA)독점공급 계약

1991.09 법인설립(땅그랑)
초대 양영연 회장 취임

1989년 초대 양영연 회장은 인도네시아내 지인의 초대로 방문하던 차 신발공장의 견학과 방문을 통해 인쇄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준비해 창업하게 되었다. BOSUNG INDONESIA는 카톤박스, 이너박스, 쇼핑백, Rigid Boxes, Pulp Mold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인도네시아내 많은 한인기업에 공급하고 있으며 수많은 현지기업 또한 BOSUNG INDONESIA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양태화 사장은 더불어 잘 살자는 캐치프레이즈로 한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현지 근로자와도 함께 상생하는 상생경영의 철학으로 전 사원을 하나로 이끌어 나가는 공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현재 BOSUNG INDONESIA는 한국인 근로자11명, 현지근로자 약 1,000명의 대규모 모금 카톤박스, 이너박스 제조기업으로 공장 부지가 약 4ha에 이르며 건물 또한 3ha에 이르는 대형 기업으로 인

부터 일본(더팩), 유럽(월드팩)으로 수출까지 하는 대형기업으로 KOGA(재인니 한국 봉제 협의회)의 매출 비율 또한 20%를 차지하고 있는 봉제협회의 회원사이다. 또한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에 이끔없는 지원을 하고있고 현재 중부자와 솔로



추는 초석이 될 것이다 설비투자로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신형 OPP라미네이팅 기계, 신형 FLEXO등 매년 생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계, 설비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품질향상은 곧바로 고객의 만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BOSUNG INDONESIA는 고객 지향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스펙과 옵션으로 완벽하게 맞춤제작을 하고 있다. 또한 27년 업력의 기반으로 다국적 브랜드의 포장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LG, EPSON, SAMSUNG, NIKE, PUMA



▲ PT.BOSUNG INDONESIA 직원들의 힘찬 하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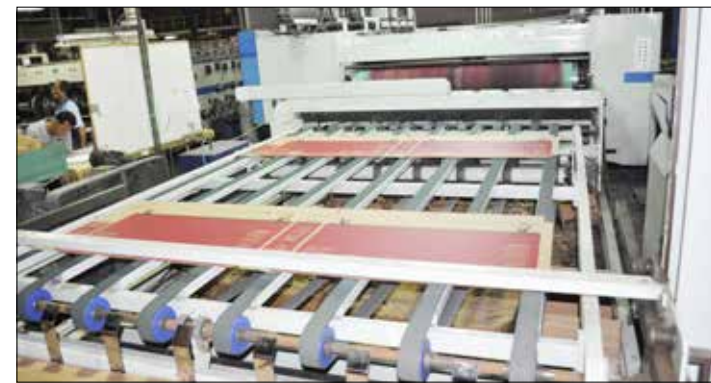


지역에 제2공장 증설의 계획을 가지고 준비중에 있으며 곧 완공 될 수라바야까지의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자와섬 전역에 BOSUNG INDONESIA의 안마당이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향후 베트남 진출 또한 계획하고 있어 명실공히 글로벌기업의 면모를 갖

등 다양하고 많은 주요 고객이 있고 이러한 글로벌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제품으로 지속적인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27년의 기업 업력으로 BOSUNG INDONESIA는 이미 한인기업보다는 현지기업으로 인식이 되어져있는 현지

화 전략에 맞는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어 고객의 80% 이상이 10년 이상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인쇄산업의 성장에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추세와 특히 한국 인쇄산업의 성장이 뒷걸음치는 현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BO-

DONESI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기업내 정책결정을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바꿔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꾸었으며 실적평가 역시 획일적인 평가보다 다면평가로 객관성있고 논리적인 경영을 해



오고 있다. 더불어 ERP개발을 자회사인 KING SLAIM SOFT에서 직접 개발해 현재 부분적인 적용을 하고 있으며 연내 전사적인 ERP시스템 가동으로 기업의 모든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SUNG INDONESIA의 미래 성장 가치는 상당히 높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을 고려했을 때 무한한 잠재 가치가 서서히 표면화 되고있는 가운데 지난해 인도네시아내 총 생산량이 350만톤을 기록했다 이는 인도네시아내 가 치생산량 700만톤 정도의 생산케파의 50%정도에 못 미치는 양으로 BOSUNG INDONESIA의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요소로 작용 될 것으로 본다.



현재 BOSUNG INDONESIA를 경영하고 있는 양태화 사장은 2006년 총괄이사로 부임해 기업의 젊은 패기와 힘을 불어넣는 구조조정에 과감한 드라이브를 걸어 BOSUNG INDONESIA의 미래 성장 동력을 계속 만들어와 2015년 BOSUNG IN-



▲ PT.BOSUNG INDONESIA 양태화 사장

ERP시스템은 현재 인도네시아내 한인 기업중에 제대로 개발해 운용하는 회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BOSUNG INDONESIA는 과감히 오라클시스템으로 개발해 완벽한 운용과 향후 기업성장에 맞춰 손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데 이는 최고경영자의 의

수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필트가격의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투자및수 성장에 못 미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기업의 전사적 시스템을 통해 극복해 낼 것으로 본다. 제조업의 BOSUNG INDONESIA이지만 서비스업과 견줄만한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의 경영을 전개해나가고 있고 고객의 소리와 고객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고객의 소리가 기업성장의 거름이 된다는 신념의 경영을 펼쳐나가는 BOSUNG INDONESIA는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의 귀감이 될 것이며 30년을 넘어 100년 기업으로 이땅 인도네시아에 뿌리내려 한인 후배 기업인의 새로운 모델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JL. Raya Rajeg,
Desa Sindangarsi
Pasar Kamis, Tangerang
TEL : 62 21 5935 1001
FAX : 62 21 5935 0033



합성 소재에 대한 전망



는 경고했다. 독성의 수로 및 오염된 해산물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된 좋지 않은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합성 직물 미세섬유 쪽으로 번지고 있다.

Camichael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성공적으로 이끈 운동가 조직인 ‘더 스토리 오브 스템프(The Story of Stuff)’에서 나온 “미세섬유에 관한 이야기(The Story of Microfibers)” 동영상에 공유했다. 동영상의 결론은 합성 섬유 세탁이 미세 섬유로 인한 오염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합성 양털이 과연 현대의 전체 산업 형태를 지속시키는데 방해가 될 것인가?’라고 Camichael은 자문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이다.

토지 오염은 Camichael가 SYFA 회원들에게 해결해야 한다고 장려한 또 다른 지속성의 결점이 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모든 환경 관련된 회의에서 합성물이 생물분해성 결핍의 주범이라고 다뤄지고 있다. Carmichael은 일부 대학에서는 합성물질 분해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있고 일부 개별적인 회사들 역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많은 회사들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에코닐은 재생 플라스틱 낚시그물(해양쓰레기의 주범)을 직물로 변환하고 있다.

또다른 SYFA 발표자인 인트린직 텍스타일(Intrinsic Textiles)은 합성섬유 분해를 돕는 CiClo 기술을 공유했다.

Textile Insight

합성 방직사/섬유 협회(The Synthetic Yarns and Fibers Association)의 추계 학술회의에서는 미국 경제 전망에서 급증하는 해양 쓰레기에 이르기까지 시의 적절한 주제들을 다루었다.

이번 4월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의 모임에서는 미국 시장과 기술에 중점을 두고 유용한 정보 및 생각을 자극하는 내용이 모아졌다.

UNC 샬럿(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John Connaughton 박사는 미국의 총 국내생산량 또는 GDP 상태에 대한 흥미로운 강연을 했다. 그는 1854년 이래로 두 번째로 긴 이번 106개월 경제 팽창의 근본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경제 팽창은 GDP를 구성하는 두 가지 인자인 꾸준한 생산성 및 증가된 고용으로 여겨진다.

교수는 현재의 경제 팽창을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성장하거나 1인당 생산량을 높이거나 또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해야만 한다고 지

적했다. 그런데 노동 성장 잠재력은 제한적이라고 Connaughton교수는 경고했다. 미국 노동청 통계는 출산율 저하로 인해 인력 성장은 1퍼센트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이는 GDP 성장은 생산성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술 혁신, 에너지 비용 절감, 소비 의욕 및 소비 증가, 국제 무역 확대로 증가하는 수요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onnaughton 교수는 최근 기업 세금을 낮춤으로 인해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미국 경제의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낙관적이다.

Alastair Carmichael은 SYFA 회원들에게 유럽 상대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해양 쓰레기 관련 회의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당신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재정적인 지원이나 어떤 결정 등에서 제외 대상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

日 물류업체 산큐, 보세물류센터(PLB) 인가 최초 취득



일본의 대형종합물류업체 ‘산큐(Sankyu=山九)’는 최근 브카시에 위치한 짜카랑(Cikarang) 산업단지 물류 센터에서 기존 창고의 일부에 대해 의류 제품의 ‘보세물류센터(PLB)’의 인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14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계 기업이 섬유 제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PLB 허가를 취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큐가 허가를 취득한 곳은 서부 자바주 브카시 델타마스 시

티의 중국 인도네시아 통합공단(Industri Terpadu Indonesia China, 이하KITIC)에 위치한 ‘짜카랑 보세물류센터(Cikarang PLB)’ 소유의 창고로, 약 4만㎡에 달하는 동부 산업 단지 중 가장 큰 지역이다. 산큐는 이 중 1만㎡에 대해 지난달 말 PLB 인가를 취득했다. 보관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산큐 측 관계자는 새로 허가를 취득한 창고에 대해 “한국의 보세 센터에 비해 보관 비용이 저렴하고 대량 생산을 하는 업체에게 메리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창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증축 예정은 없지만, 고객의 요구에 따라 향후 섬유 제품 이외의 분야에서도 PLB인가를 취득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PLB의 설립은 지난 2015년의 경제 정책 패키지에 포함되어 발표됐다. 주로 광업, 식료품, 섬유, 자동차 부품 산업 부문에 속한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다. 보세물류창고를 이용하는 데 품목제한은 없지만, 취급 품목 허가는 받아야 한다.

ELITE3
SINAR ABADI

가성비 최적의 제품을 공급합니다

**공장 유니폼
단체복
골프복
기타**

JWjindohwang@gmail.com
0812 1324 1251
021 5518 037

KITAS / KITAP / IMTA SILVER VISA (DI ATAS 55 TAHUN)

저희 오롬 컨설팅은 KOGA회원업체 전문 비자 키타스 수속 대행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 업체는 한국대사관 및 인니 노동청 옆건물에 위치해 신속하고 편리합니다.”

“20년의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 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Staff Orom 2018

노동청 Surveyor 대사관
Gedung Surveyor Indonesia Mezzanine – PT. OROM 19thFloor – PT. Doowang

PT. OROM

Graha Surveyor Indonesia b/d Mezzanine Floor Suite Mz A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Selatan
Phone : 021-2944 0401 / 02 / 03 / 04 / 05 | Email: visa.orom@gmail.com | Website : oromvisa.com
Contact Person Orang Korea : indocity1991@gmail.com | WA : indocity1991 | (핸드폰) 0812 1922 1462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4.27 판문점 선언에 이어 이달 중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기 무섭게 남북 경제교류가 급진전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남북경협에 상징적인 개성공단의 재개를 기정사실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섬유·신발업계를 중심으로 한국 내 산업 환경의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및 근본적인 인력난 등으로 고립무원상태에 빠진 국내 섬유·신발업계의 해외 투자 전략이 대거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국내 섬유산업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조심스럽게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이 예상을 뛰어넘어 파격적으로 도출되면서 철도와 도로 연결에 따른 상호 왕래가 이뤄지고 개성에 연락 사무소를 설치키로 한 것은 개성공단 재개의 전조증이며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는 즉시 특달같이 남북 경제교류가 구체화될 조짐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또 올가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중단된 개성공단 재개를 기정사실로 받아

섬유업계 해외 투자 '급변수'



▲개성공단 입주 1호 기업인 신원의 개성공단 공장 전경

남북 정상 판문점 선언... 개성공단 연내 재개 '청신호'
개성공단재개 가시화되면 섬유업계 해외투자 재검토할 듯
기존 100만평내 40만평 수준 아닌 섬유전용공단 필요
유엔제재 풀고 '메이드 인 코리아' 인정되면 르네상스 기대
단순 봉제 차원 넘어 제직·편직·염색까지 확대돼야

들여지고 있다.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단순히 기존 100만평내 시범단지에서 겨우 40만평에 불과한 124개 업체의 재가동 차원이 아니라 당초 계획한 500만평 이상의 2단계 대규모 공단으로 확대될 가능성과 함께 수십만 평 규모의 섬유·신발전용단지 조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개성공단이 확대 재개되면 그동안 단순 봉제공장 위주에서 제직과 편직·염색까

지 대거 진출하게 되며 이렇게 될 경우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및 카리브 국가로 대거 빠져 나갈려던 국내 섬유업체들이 이제개성공단으로 갈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재개문제가 남북정상회담의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유엔 제재가 풀리고 국제 사회가 개성공단 제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인정받는 전제조건이 뒤따르면 섬유·신발분야는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투자 적지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문제점이 많았던 북측의 통행, 통신, 통관의 3통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과 함께 무리한 임금인상 방치책 등의 선결문제가 해결되는 보장책을 전제로 재개협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갈수록 어려운 국내 섬유 제조업체들이 백방으로 수소문하며 해외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향후 개성공단의 추이를 지

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기존 124개 기업들이 앞장서 재가동에 참여하겠지만 이들도 개성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있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들은 폐쇄 2년 2개월 동안 기업의 생명인 영업권을 상실해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전체적으로 3000억원에 달하는 고정자산 경험보

험금을 재개와 동시에 반환토록 한 규정에 따라 이를 전액 돌려내야 하고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운전자금과 거래선 확보과정이 산적해 있어 자력으로 재가동할 기업이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개성공단기업에 대한 장기용자 등 정책적인 지원책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개성공단에 대규모 섬유단지가 조성되면 위기에 몰린 국내 섬유산업이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벌써부터 해외탈출 기업들의 재검토가 본격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섬유신문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비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쾌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r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Top Coat
Substrate AZ 150
Base Metal
Polyethylene Foam 8mm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점착

1. 35mm Trimdek
930mm / 35mm
2. 25mm Trimdek
1040 / 25mm
3. 35mm Spandek
920 / 35mm
4. 110mm Seaming Type (Roll on Site)
420 / 110 / 225
5. Genteng Metal (기 와)
82 / 35 / 20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 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점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바구스 투어

인도네시아 비자여행
BAGUS/ 조은여행

고객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상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특별한 주말 비자여행!!!
 이제 바구스투어에서 시행합니다.

싱가포르 비자 여행

- 공항 픽업 서비스
- 리버보트
- 점심
- 공항 센딩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비자여행

일요일도 비자 가능합니다

평일 12시 전 여권 수령가능
2~3시 인니 귀인 가능

손님이 원하실 경우
호텔 무료 1박 서비스

Office : (+65) 6224 4330
 HP : (+65) 9060 2449, (+65) 9821 3672
 카톡 ID : 소장 김경수 bagusvisatour
 Address : 49A South Bridge Road, Singapore 058681
 E-Mail : bagustour2015@gmail.com

인도네시아투자 이것만은 알고 하자 (6)

불법 벌목 및 팜 플랜테이션 농장 확대화로 오랑후탄이 사라지고 있다 불법 벌목으로 오랑후탄 곤역

200~300년 전만 해도 수마트라에서는 오랑후탄 (Pongo Abelii)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그 숫자가 계속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먼 미래에는 수마트라 지역에서는 더 이상 오랑후탄을 찾아볼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회 시민단체와 외국인들이 이 지역의 오랑후탄 보존운동을 펼치기 위한 국제 동물보호단체의 활동 및 세미나 등이 자주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수마트라 오랑후탄의 경우에는 팜 플랜테이션 농장개발 및 불법 벌목자들의 마구잡이 벌목의 영향으로 인해 오랑후탄은 자신들의 삶과 신변보호를 위해 보다 안전하고 먹을것이 많은 곳으로 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들 불법벌목의 극심한 피해 확장으로 인해 오랑후탄의 경우 자신들이 생명보존을 위해 보다 더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정글 깊숙한 곳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타 장소로 이동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때 수마트라에는 약 7,000-7,500마리의 오랑후탄이 살고 있는 것으로 잠정 조사된 바 있었다.

오랑후탄이 제일 많이 살고있는 지역으로는 남고르 아찌 다루살람 주로 북부 수마트라지역에 주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되고 있고, 특히 북부 수마트라 13개지역을 주요대상으로 이들 동물 보호단체들이 집중 조사한 결과, 현재 약 500마리의 오랑후탄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외 7개지역을 중심으로는 약250마리 정도가 살고 있는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 6개지역 정글을 중심



으로는 산림 벌목이 타 다른곳과 달리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들이 혹 우려하고 있는 것은 현재와 같은 속도의 벌목 과정 이라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들 오랑후탄 삶의 터전이 더욱 좁아질것이 분명하고 오랑후탄의 전체 개체수마저 50% 이하로 감소할 수도있다는 우려 아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마트라 지방정부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오랑후탄 54마리 정도를 이 지역 주민들이 집에서 불법으로 잡아 기르고 있는것을 모두 소환 조치하여 정글내의 안전한 곳에 다시 풀어 주어 정글에서 다시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오랑후탄 보존운동과 더불어 자연환경 운동을 하는 관련 시민단체와 NGO 외국인 단체들과 함께 이와 같은 자연 환경 동물보호 보존운동

에 적극적으로 활동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오랑후탄이 제일 많이 살고있는 지역으로는 수마트라가 아닌 칼리만탄지역으로 칼리만탄지역에서는 때로는 오랑후탄을 몰래 산채로 포획 일본이나 싱가포르, 중동등 해외로 몰래 밀 수출하려다 적발되는 불법 밀매업자들의 사례도 적지않게 적발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 천연림 보호 동물로 지정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산 오랑후탄을 계속 보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 조사와 엄격한 처벌을 제시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타 외국으로 방출되고 있는 오랑후탄에 대한 각 공항과 항만등을 통해 매우 엄격하고 타이트한 단속을 하고있다고 전했다.

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그와 같은 불법거래를 주선하거나 직접 가담하여 밀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대응의 가중처벌도 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통보하고 나섰다.

앞으로 이에 대한 자연보호 동물 및 자연보호 환경차원에서라도 이들 자연보호 동물들에 대한 단속을 보다 더 엄격하게 단행함은 물론, 정부관련 부처 및 각 교육기관을 통한 초,중,고,대학에 이르기까지 홍보 활동 교육세미나를 통해 오랑후탄 보존운동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세계 동물 구호 보호단체들은 강조하고 있다.

참고로 칼리만탄의 경우 Pangkajene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자체 천연보호 동물 오랑후탄의 서식지를 자연과 함께 보호하며, 세계 여러나라에서 찾는 관광객들에게 오랑후탄의 삶을 직접 정글에서 탐험하고 직접 유관으로 볼 수 있는 체험학습장과 같은 관광코스를 만들어 외국인 특히 서양인들에게 인기 만점의 관광코스, 오랑후탄을 직접 눈과 강 그리고 정글에 들어가 볼 수 있는 친환경 자연 관광코스의 오랑후탄 학습장을 인니 유명 관광코스중의 하나로 권장 할 수도있다고 오지관광 탐험가와 동물 보호단체들은 조언하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년 1~2회씩 칼리만탄 지역을 대상으로 오랑후탄을 잡아 불법으로 밀수출 하려다 적발되는 사례들이 아직도 수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공항 세관측은 밝히고 있다.

오랑후탄외에 원숭이나 희귀동물(조류나,어류등포함)들을 잡아 밀수출하거나 또는 야생 원숭이를 잡아 원숭이 고기를 인근 국가의 싱가포르에 밀수출하는 불법 거래업자들도 종종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조

학력
IAN 자카르타대학 졸업
U 대학 대학원 인류학 석사졸업
PTK 경찰 대학원 2년과정 수료
UN 국립 이슬람 대학교 박사 졸업

경력
현 국회 보좌관 / 현 UNUA 대학교수
상공회의소 대외협력 국장
봉제협회 대외협력 부회장
교육, 문화, 전문 강의 전도사
인적자원 네트워크 컨설팅

알리, 안선근





“Best Poly Bag manufacturer in Indonesia since 1991”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27년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Best Quality | Fast Delivery

Products

- Poly Bag (LDPE, HDPE, PP, EVA)
- PE Sheet (plain, embossed)
- PVC Bag
- OPP Bag
- Garbage Bag
- Zipper Bag
- Shopping Bag
- Strapping Band

Contact

Marketing Office
T. (62-21) 440 3926
F. (62-21) 440 3944

E-mail:
bhjangjk@indosat.net.id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셀에 이어 빠르다미나도 휘발유 가격 인상 추진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섬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내 유가를 인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17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지난 16일 기준 국제시장에서 브랜트유 가격이 77.91달러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6월에는 브랜트유 가격이 44.82달러였다.

니게 위아와피 빠르다미나 사장 대행은 16일 내부적으로 유가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도, 유류 소비가 증가하는 라마단인 만큼 안정적인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빠르다미나 관계자 사흐릴 목파르 씨도 자사가 휘발유 가격 인상을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휘발유 가격이 국민에게 민감한 사항인 만큼 소비자구매력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유가인상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광물부 석유가스국 조

꼬 시스완포 국장은 15일은 앞서 셀 인도네시아(PT)는 휘발유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정부에 제안했다고 전하면서도 구체적인 가격은 언급하지 않았다. 셀 인도네시아의 다르윈 실탈라이 대표도 가격인상 문제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다.

조코 국장은 앞으로 2주 내에 유가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에 에너지광물부는

장관령(Pemen) No39/2014)에 따르면, 국내 모든 석유유통업체에 휘발유 가격을 인상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했다.

이전 규정은 휘발유 가격을 국제유가와 루피아/달러 환율에 의해 변동시키고, 유통업체의 마진은 휘발유 가격의 5~10% 선으로 결정하도록 했었다.

인도네시아에는 국영 빠르다미나, 민영 셀 인도네시아, 비보

프레쉬 오더

프레쉬오더 생산
스타일당 3~4개 컬러 1만장 이상
컨테이너 베이스
Mens/Ladies/Girls/Boys

캔솔오더/STOCK: 대량수량매입

+62 858 1369 4992
6shg10@gmail.com

PT SHINHAN GLOBAL INDONESIA

에너지 인도네시아(Vivo Energi Indonesia), 토탈 오일 인도네시아(Total Oil Indonesia) 등이 석유유통사업을 하고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공지사항

5.23일부터 인도네시아 세관 적하목록모듈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업무 방식에서 몇 가지 변경될 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우선 해상 선적건부터 5.23일

적용 예정입니다.

1. MBL&HBL: 인도네시아 수입자 TAX NO(NPWP)입력
2. MBL&HBL: DESCRIPTION란 각 품목별 HS CODE 필수 기재 (4자리까지만)
3. DESCRIPTION란 품명기재시 상세 품명 기재(기준과 동일)

*사전에 인도네시아 수입자측에 TEX NO 확인하여 선적서류 작성

할 수 있도록 SHPR측에 안내 부탁드립니다.

*기존 1MBL&1HBL 발행의 FCL 건의 경우 일부 선사의 경우도 착차 적하목록 조정이 가능하였 습니다만 앞으로는 도착지 조정이 불가합니다.

때문에 사전에 수출입자간의 서류를 완벽히 하시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ANSHIN AIR COMPRESSORS

(주)한신기계공업 인도네시아 총판대리점

인도네시아 한인기업과 함께 한 18년!!!

중부자와 서비스지점 오픈 !!!



NH 시리즈(피스톤 콤프레셔)

국내 최대 판매, 유일 수출
피스톤 콤프레셔 (1~20마력)



RCH 시리즈 (소형스크류 콤프레셔)

설치면적 최소화, 경량화, 정숙화 실현
(5~20 마력)



AD-HT 시리즈 (일체형 드라이버)

에프터 쿨러, 에어필터, 에어 드라이어 일체형으로 설치면적 최소화.
입구온도 80°C 설계로 더운 동남아 지역에 최적화.



GRH 시리즈 (오일 인젝션 콤프레셔)

스크류 : 독일(GHH-RANDSA)
세퍼레이터 : 일본



AL, CDH 시리즈 (오일프리 콤프레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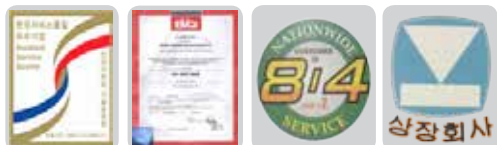
완벽한 오일 차단, 최장의 운전시간 보장, 최고의 오일프리 스크류 사용
AL 시리즈 : Kobelco(일본) CDH 시리즈 : GHH-RAND(독일)



매월 정기점검 서비스

국내 구입가 보다 저렴한 가격

세계적으로 성능이 인정된
독일 GHH RAND 스크류사용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현지인 매니저 / MARIONO : 0812 961 8455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TANGERANG Ruko Tatac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JEPARA Ruko, Jl. Gotri Jepar,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롯데·현대·신세계 유통 빅3가 신시장서 격돌한다. 무대는 연 100조원 시대를 맞은 온라인 쇼핑이다. 롯데쇼핑은 8개 계열사 온라인몰을 통합하고 4년(2022년) 후 온라인 매출 20조를 달성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를 위해 온라인 사업에 3조원을 투자한다. 옴니채널을 완성시킬 O4O(On-line for Off-line) 전략을 추진한다.




급변하는 유통환경을 선도하고 온라인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롯데 온라인 매출은 7조원 규모다. 전체 매출(40조원)의 18%를 차지한다. 2022년에는 온라인 매출 비중을 30%(유통 전체 매출 목표 60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롯데는 먼저 오프라인 조직에서 온라인 조직을 분리해 통합한 'e커머스(commerce) 사업본부'를 오는 8월 신설한다. e커머스 사업본부는 그룹의 온라인 핵심 역량을 하나로 모아 전문성을 높였다. 계열사별 시스템 인력과 R&D 조직을 통합했다. 온라인 운영 노하우가 20년 넘게 갖추어진 롯데닷컴을 합병했다.

롯데 O4O(On-line for

롯데·현대·신세계, 年 100조 온라인 통합몰서 격돌

증강현실·챗봇 등 고객맞춤형 서비스 관건

유통 빅3 온라인 시장 대응 전략			
구분	온라인 통합몰 매출 목표	차별화 전략	대표
롯데쇼핑	2022년 20조	e커머스 사업본부 8월 신설 계열사별 경계없는 배송 서비스와 회원 구매 데이터 통합 등	강희태 대표 
현대백화점그룹	2020년 0.5조	증강현실(AR)기술 도입해 매장 그대로 재현 내년 VR 백화점 서비스 실시	정지선 회장 
신세계백화점그룹	2023년 10조	1조원 투자 e커머스사업 별도 법인 신설 예정 고객상담 챗봇 서비스 시작	정용진 부회장 

Off-line)는 고객 구매 이력과 각 계열사별 물류 및 배송 시스템을 통합해 온오프라인을 융합한 형태다. 국내 인구 절반이 넘는 회원의 구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1:1 맞춤형 마케팅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1만1000여개

오프라인 채널을 배송 거점으로 활용한다. 옴니채널 체험 매장, 무인점포도 늘려나간다. AI플랫폼 기반의 보이스(Voice) 커머스에 집중해 미래형 쇼핑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롯데쇼핑은 지난 15일 소공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 블룸에서 열린 '롯데 e커머스 사업전략 및 비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강희태 대표는 "롯데닷컴 합병을 시작으로 신성장 동력인 온라인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옴니채널 완성을

위한 롯데만의 O4O전략을 통해 2022년까지 매출 20조원, 업계 1위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유통 라이벌 신세계그룹은 2023년까지 온라인 매출 10조원 달성이 목표다. 지난 1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1조원 이상을 투자해 연내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의 온라인사업부를 통합 한 뒤 e커머스사업을 총괄하는 별도 법인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 1월1일 온라인 통합몰 'SSG닷컴'을 출범 시켰다. SSG닷컴은 작년 2조원 매출을 달성했다. 지난 4년간 80%대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올해 4월 'SSG 고객상담 챗봇'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배송이나 교환, 반품 등 8개 항목에 대한 질의응답이 되는 고객 맞춤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통합온라인쇼핑몰 더현대닷컴을 통해 2020년까지 5000억원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더현대닷컴은 증강현실(AR)기술을 도입해 차별화하고 있다. 2016년 1월 선보인 더현대닷컴은 그 해 VR스토어를 오픈했다. VR스토어는 매장을 그대로 재현해 화제가 됐고 당시 1만명이 스토어를 방문했다. 지난해 8월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상품을 추천하는 딥파인더 서비스를 도입했다. 내년에는 VR백화점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온라인 사업 관련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백화점·홈쇼핑·의류·가구 등 고객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계열사별 온라인몰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AI 기반 4차 산업 혁명에 맞춘 서비스 및 신사업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작품명 : Night Blossom



유지민 작

작품명 : ALICE OF EASTER DAY



이도희 작

제5회 코리아 텍스타일 디자인 어워드 수상작·입선작을 상품화에 추천합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와 창간 36주년을 맞은 전통의 전문매체인 한국섬유신문의 산학협력에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섬유신문이 전개하는 지상전은 섬유·패션·의류산업의 뛰어난 디자인 발굴·육성과 관련업계에 신선한 디자인 연결을 통해 공동 협업 발전하는 윈-윈 전략입니다. 전공학생들에게는 용기와 도움을 주고 필요한

디자인을 공급받으시는 메이커에는 신선한 충격으로 매출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지 지상전은 수상·입선작 100여 점을 50회에 걸쳐 매호 2점씩 소개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전공학생들 작품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수요 메이커에는 다양한 작품 선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상담 :

김선희 부장 02-326-3600

SystemEver | 시스템에버 - Cloud ERP



아직도 세무조사 앞에서 떨고 있나요?

1200여 고객의 노하우가 담긴 SystemEver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놓친 자료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 매입원장
- 매출원장
- 제조원가명세서
- 경비원장
- 보조장
- 은행장

